

‘임종룡號 우리금융’ 첫 은행장에 상업 출신 박화재 재부상

우리금융그룹 24일 주주총회

관계사 윈P&S 대표에 내정됐지만 은행장 후보군에 포함 가능성 높아 JY 대출, 계열사 시너지 등 성과

차기 우리은행장 후보군에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 다시 부상하고 있다. 최근 단행된 자회사·관계사 최고경영자(CEO)도 후보군에 포함될 전망이다. 박 전 사장은 최근 우리은행 관계사인 윈P&S 대표에 내정됐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우리금융그룹은 오는 24일 주주총회를 거쳐 임종룡 차기 회장이 임기를 시작한다. 이에 따라 차기 우리은행장을 선임하기 위한 경영승계프로그램이 곧바로 가동될 예정이다.

경영승계프로그램은 주요 보직자 3~4명을 후보군으로 선정한 후 일정 기간 성과를 분석한 다음 적임자에 대해 자



박화재 전 우리금융 사장

회사 대표이사 후보추천위원회(자주위)에서 결정한다.

우리금융은 지난 7일 이원덕 전 우리은행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차기 우리은행장 선임 과정을 서두르고 있다. 우리은행은 우리금융에서 순이익의 약 92%를 책임지고 있는 핵심 계열사다. 임 내정자의 취임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자리를 오랫동안 비울 수 없기 때문에 인선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임 내정자는 차기 은행장의 역량으로 영업력과 조직구조 개혁, 내부통제 강화 등을 우선시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가장 유력한 후보는 박화재 전 우리금융지주 사업지원총괄 사장이다.

박 전 사장이 관계사 대표로 내정되면서 우리은행장 후보에서 배제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관계사 대표 인사의 경우 사장과 부사장, 부행장 등 임원들의 커리어를 마감하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금융 내부관계자는 “최근 자회사·관계사 CEO 인사를 단행했지만 우리은행장 후보군에 자회사·관계사 CEO도 포함 가능성이 높다”며 “차기 우리은행장은 상업은행 출신일 것”이라고 말했다.

1961년생인 박 전 사장은 광주상고 졸업 후 고위 임원에 오른 입지전적인 인물로 43년 동안 여신전문가의 길을

걸었다. 우리금융 내에서는 전형적인 손태승 회장 사람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이원덕 행장과 경쟁하면서 손 회장과 거리가 멀어졌다는 후문이다.

우리은행 주택금융사업단장과 서초 영업본부장, 업무지원그룹 상무, 여신 지원그룹 상무, 여신지원그룹 집행부행장 등을 거친 대표적인 ‘영업통’이다.

중간 관리자 시절을 현장과 영업에서 활약하면서 업적을 쌓았다. 박 전 사장의 대표적인 업적은 삼성사 상속재원 마련 관련 대출건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개인신용 대출로 상속세 납부에 필요한 자금 절반을 우리은행에서 취급했다.

삼성그룹과 탄탄한 기업금융 네트워크를 다져온 박 전 사장의 주도가 주요했고, 이후 우리은행이 기업여신 명가라는 점을 시장에 각인시키는 성과를 냈다.

지난해 초 행장 경쟁에서 떨어져 지주 사장에 올라 우리은행과 우리카드,

우리증권 등 계열사 시너지를 극대화시키는데 앞장섰다.

최근 임 내정자가 영업 중심으로 조직개편을 단행하면서 박 전 사장이 유력한 은행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박 전 사장이 상업은행 출신이란 점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이원덕 은행장 모두 한일은행 출신이었던 때문이다.

한편 우리은행 내에선 상업은행 출신인 박화재 전 사장 대항마로 한일은행 출신인 강신국 기업투자금융부문 부행장이 다크호스로 부상했다는 후문이다.

우리금융 내부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인선 작업이 끝나면 좋겠지만 사실상 너무 촉박해 4월 초에 결정이 날 것”이라며 “회사 내부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선임돼 조직안정과 체질개선에 힘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작년 손보사 장사 잘했다... 순이익 27% ↑

보험사 순이익 전년보다 11% 늘어 손보사는 6% ↓... 투자 영업의 악화

지난해 손해보험사와 생명보험사의 성적표가 엇갈렸다. 손보사의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6.6% 증가한 반면, 생보사는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보험사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생보사 23개, 손보사 31개) 당기순이익은 9조180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1%(9141억원) 증가했다.

생보사는 3조7055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6.0%(2348억원) 감소했다.

보험영업이익은 금리상승에 따른 보증준비금 감소 등으로 개선된 반면 투자영업이익은 금융자산 평가·처분이익 감소 등으로 악화됐다.

반면 손보사는 5조4746억원으로 26.6%(1조1489억원) 증가했다. 장기보험의 신계약 증가와 손해율 하락 등으로 보험영업이익이 개선됐고, 금리 상승으로 이자수익이 증가해 투자영업이익도 증가한 덕분이다.

(보험사 주요 손익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년(A)	2022년(B)	증감(C=B-A)	증감률(C/A)
생명보험회사	당기순이익	39,403	37,055	△2,348	△6.0
	보험영업이익	△231,197	△218,711	12,486	손실 감소
	투자영업이익	243,425	229,709	△13,716	△5.6
	영업외이익	37,952	36,008	△1,944	△5.1
손해보험회사	당기순이익	43,257	54,746	11,489	26.6
	보험영업이익	△25,708	△14,152	11,556	손실 감소
	투자영업이익	86,258	90,905	4,647	5.4
	영업외이익	△908	△3,177	△2,269	손실 증가
보험회사 당기순이익		82,660	91,801	9,141	11.1

이 기간 수입보험료 성적은 똑같이 증가했다. 총 수입보험료는 252조8000억원으로 10.8%(24조6000억원) 증가했다. 생보사는 132조6836억원으로 10.1%(12조1379억원), 손보사는 120조1108억원으로 11.5%(12조4213억원) 늘었다.

보험사의 총자산이익률은 0.69%로 전년 동기 대비 0.07%포인트(p)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도 8.22%로 2.27%p 올랐다.

금리상승 영향으로 매도가능증권 평

가 손익이 감소하며 재무상태는 악화됐다. 총자산은 1310조1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3.6% 감소했다. 자기자본은 88조9000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34.0% 줄어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 변동 등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신제도 시행 등에 대비해 상시감시를 강화하고 재무건전성 취약 우려 보험사를 중심으로 자본 확충 등 손실 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외국은행 국내지점 작년 순이익 40% ↑

파생관련 이익 대폭 증가

지난해 국내에 있는 총 35개 외국계 은행 지점의 당기순이익이 40% 이상 증가했다. 다만, 이자이익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21일 발표한 외국은행 국내지점 경영실적(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외은지점의 당기순이익은 1조494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0.4%(4297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중 환율 및 금리 변동성이 확

대되면서 파생관련이익이 대폭 증가한 데 주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환·파생이익은 환율상승으로 외화부채 평가손실 등이 발생해 외환손익은 손실폭이 확대됐으나 환율·금리상승 리스크 헤지 등을 위한 파생상품거래를 늘리면서 파생손익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개선됐다.

하지만 이자이익이 감소하고 유가증권 및 외환관련 손실은 확대됐다.

이자이익은 1조6130억원으로 전년 대비 9.3% 감소했다. 금리상승에 따라

차입금 이자비용(변동금리)이 빠르게 증가했으나 고정금리 대출, 국공채 투자 등으로 이자수익은 상대적으로 덜 증가했다. 같은 기간 국내은행들이 전년보다 21.6%(9조9000억원) 늘어난 55조9000억원의 이자이익을 낸 것과 상반되는 모습이다.

유가증권 손실은 2조7594억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확대됐다. 금리상승에 따라 국공채 등 채권매매·평가손실이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고정이하여신 증가, 2021년도 총당금환입에 따른 기저효과로 대손비용은 492억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다.

/구남영 기자

DB손보, TV 新광고 ‘아졌SONG’ 선택 캐롯손보-교통공, 안전운전 인식 강화

보험 브리핑

현대해상 ‘간편한 355건강보험’ 광고영상 유튜브 2000만뷰 돌파

DB손해보험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새 광고를 선보인다.

◆ 스마트폰 활용에 익숙한 소비자 일상

DB손해보험은 새로운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TV광고 ‘아졌SONG’을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고인 ‘아졌SONG’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를 통해 기억하기 쉽도록 제작했다. 또한 DB손해보험 모델 윤아를 시작으로 촬영스텝 및 직장인, 전기자 운전자, 배달 라이더 등 다양한 고객이 운전하는 모습을 형상화했다.

신규 광고는 케이블TV와 유튜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을 통해 방영한다. 광고에서 모두보여주지 못한 모델들의 미공개 영상은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 화물차 운전자들의 안전 도모

캐롯손해보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본부와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1일 전했다.

이번 협약은 안전운전 인식을 강화하고 교통사고 발생률 감소를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이 목적이다. 지난해 한국교통안전공단 서울본부, 서울특별시, 서울경찰청과 함께 서울시 화물차 안전운전 캠페인 등을 운영한 바 있다.

한 달간 진행한 프로젝트에는 화물차 운전자 1700여명이 참여했다. 차량의 주행거리와 위치 파악, 자체 개발한 안전운전 프로그램 활용



DB손해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아졌SONG’

/DB손해보험

했다. 캐롯손보 관계자는 “교통 공공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안전운전 캠페인 활동에 앞장설 것이며, IT기술력 고도화 및 안전운전 프로그램 개발로 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유병자보험 가입 내용 담야

현대해상은 ‘간편한 355건강보험’ 광고 영상이 유튜브 조회수 2000만 뷰를 돌파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광고는 백발의 노신사가 한 건물에 친근함을 느끼는 모습으로 시작한다. 지난 1월 ‘세상 놀라운 보험의 헌답’을 메시지로 제작한 총 세 편의 디지털 광고영상 중 하나다.

여러 특약들로 연쇄 할인율 강조한 ‘자동차보험’ 편과 생활 밀접형 보장 혜택을 현실적으로 표현한 ‘주택화재보험’ 편의 조회수가 상승하면서 세 편의 캠페인 광고 영상 유튜브 조회수 합계는 총 3500만 뷰로 집계됐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짧은 광고지만 고객을 위하는 현대해상의 진심을 전하고자 노력했다”며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신 고객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